호남 경제 새로운 동력 '미래경제협회' 닻 올린다

20일 광주대서 출범식…민·관·학 연대 '호남 백년대계' 설계
의료·건설·제조업 등 60여개사 '3040 젊은 CEO' 대거 참여
경제 세대교체 신호탄…AI·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선도 앞장

호남 경제 지형을 뒤흔들 차세대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래경제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진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에서 '미래경제협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경제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 속에서 지역경제의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3040 젊은 CEO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신개념 경제단체다.

이들은 'Young CEO', '미래 신산업', '호남 초광역 협력'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기치로 내걸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민·관·학 연대 모델을 통해 '호남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창립총회는 지역 경제계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협회 준비위원회에는 박진환 스마트원치과병원 원장(준비위원장), 김세진 유하 대표(사무총장)을 비롯해 김동진 광주대 총장, 김명선 세무사, 김재홍 디케이 대표,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 류비 금강전력 상무, 박창민 운리산업개발 대표, 백선우 우리종합건설 이사, 양승빈 호원 부사장, 양하영 노아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염종학 서산 대표, 이원균 시원병원 대표원장, 이정우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이태희 동부도시개발 이사, 정종명 법무법인 기원 대표변호사 등 의료·건설·법조·제조업을 망라한 각 분야 핵심 리더들이 대거 포진했다.

행사에는 60여개 창립 회원사가 참여해 협회 비전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린다.

초대 회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미래 비전 및 사업계획 PT, 산업 분과별 타운홀 미팅, 고품격 비즈니스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협회 핵심 프로젝트인 '호남 백년대계 리더스 클럽'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이번 창립총회를 발판삼아 오는 2027년까지 전북권으로 외연을 확장, 회원사 300개를 확보하고 2028년에는 회원사 1000개 규모의 '호남권 최대 메가 경제단체'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청년 경영인 네트워크인 'YPO(Young Presidents' Organization)'를 벤치마킹, 세계적 수준의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에 이식해 '한국판 YPO'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진환 미래경제협회 준비위원장은 "미래경제협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탈피해 지역경제의 담론을 주도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뉴오피니언 리더 그룹이자 행동하는 경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젊은 리더들의 신선한 혁신과 강한 추진력을 동력 삼아 광주·전남을 넘어 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협력의 핵심 앵커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플로원·은우산업·㈜에스피씨 여수 '자랑스러운 기업인' 선정

여수시가 2025년 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을 선정하고 지난 2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12월 직원 정례회에서 시상했다.

여수시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은 기술혁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8년 시행된 이후 작년까지 총 77명이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총 3명으로 문철근 ㈜플로원 대표와 최희선 은우산업 대표, 최준태 ㈜에스피씨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지난 9월 여수시 자랑스러운 기업인 선정 계획을 통해 읍·면·동장과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및 여수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플로원은 주삼동에 위치한 밸브·배관 제조업체로, 지난 2004년 설립돼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2024년 벤처천억기업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은우산업은 화양면에 위치한 물탱크·정수처리시설 제조업체로 지난 2009년 여성기업으로 설립돼 농공단지 활성화와 상수도 분야에 기여했다.

에스피씨는 여천동에 위치한 필터·배관 제조업체로 지난 1990년 설립,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용 필터와 배관 자재의 국산화를 주도하며 경영 혁신에 앞장섰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메조팜 등 2개 업체와 총 2건의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농기원, ㈜메조팜 등 2개 업체와 특허기술 이전 협약

총 261건 기술 이전…9억1000만원 기술사용료 수입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메조팜 등 2개 업체와 총 2건의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유자씨 착유박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 '리모노이드'를 고수율로 추출하는 기술, 토종 미생물을 이유자돈 사료에 첨가해 폐사율을 낮추고 성장률을 높이는 사양 기술 등 2건이다. 두 기술 모두 현장 적용 가능성과 산업화 잠재력이 높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총 261건의 기술을 통상실시 형태로 이전해 135개 기업과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9억1000만원의 기술사용료 수입을 거두는 등 지역 기업 성장과 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술 신뢰성과 현장성 높은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메조팜 노재국 대표는 "연구사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기술적 확신을 갖게 됐다"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농바이오 윤용희 대표도 "대리점과 농가의 수요 증가로 두 번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구축한 설비를 기반으로 농업기술원의 우수 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행란 전남농기원장은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업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기원을 통해 더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구·기술 이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보해 '잎새주' 크리스마스 에디션 출시

연말연시 겨냥 시즌 제품…파티팩 5ℓ 500세트 한정판매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연말연시를 겨냥한 잎새주 한정판을 선보인다.

남도 대표 소주 잎새주에는 라벨의 새로운 상징인 은목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고 설경과 눈꽃 요소를 더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루돌프를 대신해 2026년 병오년 '적마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을 그려 넣은 것도 특징이다.

또 잎새주 파티팩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지난 7월 선보인 5ℓ 파우치형 신제품의 한정판이다. 빨간색과 아이보리 톤에 선물 상자, 리본, 장식 등 파티 요소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에디션은 500세트 한정 제작된다.

잎새주 360㎖는 전국 대형마트·편의점 등 기존 유통망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잎새주 파티팩 5ℓ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또는 우리동네GS 앱 내 와인25플러스에서 구매 후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픽업하면 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선물·모임 수요에 맞춰 두 제품을 시즌 한정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파티팩은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된 만큼 서둘러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세관장, 제주세관 통관 감시 현장점검

광주본부세관은 3일 강태일 세관장이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세관을 방문해 공항 입출국장과 면세점 등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제주세관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단속 상황과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간 컨테이너선 취항에 따른 통관·감시 현황을 보고했다.

강 세관장은 새롭게 개설된 무역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제주지역 공항·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